

Title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Even if He doesn't...”*

몇 개월전 남편과 나는 예상치 못한 사실을 전해 듣고 큰 충격에 빠졌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조기 은퇴를 하라는 것이다. 이게 웬 말인가, 이곳 오렌지 카운티에 한인 사역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십년전에 일년 사역하다가 북가주로 발령이 나서 올라갔었고 그곳에서 8년간 사역에 충실하다가 다시 기회가 주어져서 이곳 오렌지 카운티로 발령받아 내려 왔는데 조기 은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말을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충격에 심장이 뛰고 식은 땀이 흐르면서 뒷말을 이을수 없었고 그자리에서 쓰러질것 같은 신체 상황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대화를 마무리지었고 자리를 떴다. 남편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가 뭘까?”를 중얼거렸으나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었다. 우리가 받은 충격은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역시도 아무 대안을 들을수 없었다. 은퇴 나이를 3년 앞두고 있는데 은퇴후의 삶이 대책이 없었으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심한 두려움과 갈등의 요인이 되어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2년전 이곳으로 발령받아 왔을때 부터 정말로 알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불쑥 불쑥 튀어 나오는 통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을 갈 수 없다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추수리면서 지나왔다. 그렇게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때문에 마음에 기쁨은 고사하고 평안이 없어지면서 공연히 남을 송사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원망의 말을 하다 보니 관계가 서운해지고, 남들을 판단하면서 시야비야를 따지듯 하다보니 나의 시간들이 황폐해져가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생각들로 눈물과 한숨이 내 마음을 자리잡고 있었다. 그렇게 기도조차 하지 못하던 어느날 아침 다니엘서 3:13-25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의 믿음에 찬 생각과 행동이 그날따라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대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대니엘은 어떻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었을까? 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심하게 갈등을 겪고 요동을 치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평안으로 다가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속삭이셨다. 그런 뒤로 나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되뇌이면서 “당신의 자녀이오니 당신이 인도하소서 당신만 따르리이다” 그뒤로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축하한다고 전화를 한다. 그들에게 은퇴하라면 큰소리로 쾌재를 부르고 즐거워 하면서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면서 지내겠노라고 말이다 솔직한 마음이라고 두번 세번씩 강조한다. 그렇다 조기은퇴가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지금은

‘디딤돌’로 삼아서 차분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는다.
그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나인가?”를 되풀이 하지 않고 “많은 사람중에 나를 지명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해요”로 바뀌었다. 그럼과 동시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 일 뿐이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시다’ 라는 고백을 한다. 대니엘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빌(Phil)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